



도자문화관조감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문화공간

국립광주박물관 업무추진계획 발표

국립광주박물관(이하 광주박물관)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광주박물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시아 도자문화 및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목표로 세운 주요계획은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의 비전인 '도자문화관 건립 본격 추진'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특별전 개최 ▲지역문화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추진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박물관을 위한 관람 환경 개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박물관교육과 문화행사 추진 ▲거점 박물관으로서 지역 문화기관 지원·협력 강화다.

◇도자문화관 건립 추진

광주박물관은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의 비전인 '도자문화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자문화관은 오는 4월 14일 첫 삽을 떠내던까지 진행한다. 이후 정비기간과 전시기획 등을 수립한 후 2025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도자문화관은 한국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도자문화와 도자기 발달사를 조명한다. 1층 전시실에는 도자기를 매개로 한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영역으로 채운다.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연출로 전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2층은 관람객 휴게공간과 도자기전문보존과학실로 채운다.

아울러 신안해저문화재 중 송원대 경덕전·복건 등에서 생산된 백자 6,100여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안해저문화재 조사연구총서 4-백자'를 발간하며, 전시품을 대상으로 정밀스캔과 C·T촬영 등을 통해 3차원 디지털 원형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 문화향유 특별전·문화행사

광주박물관은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특별전과 대상과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한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와 공동으로 마련한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 중 '일시적 주권' 주제 전시다.

오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광주박물관



청자대반

오는 4월 도자문화관 첫 삽

신창동 유적 토양시료 분석

어린이 박물관 등 환경 개선

기획전시실과 중앙홀 다목적실, 야외정원에서 열리는 전시는 캔디스 린 등 6명의 현대 작가 작품을 비롯해 광주박물관 소장품인 신안 청자대반(신안15722) 등 200여 점을 함께 전시해 억압과 차별을 극복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반기 기획특별전으로는 '애중(愛重), 사랑하고 소중히 아낀 그림(가제)'을 선보인다. 광주박물관에 기증한 서화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로 조선 말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기증 작품 50여 점을 공개한다.

◇지역문화 조사·연구

지역문화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고고·역사·불교미술·고문헌 등 다양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추진해 문화 콘텐츠 생산과 활용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먼저 선사유적인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의 문화경관 복원 연구가 올해도 이어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신창동 시추조사에서 확보한 신창동 유적의 토양시료 등을 분석해 과거의 환경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실에 전시 중인 '광양 흥중상성 쌍사자석등 종합보고서'도 발간한다. 일제강점기 석등의 이전·보존 과정과 석등에 대한 학문적 의미를 수록한다.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박동춘 선생 기증 초의 선사유물 번역집-시문편'을 6월 중 발간한다.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문화취약계층을 비롯한 누구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관람 친화적 박물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관람환경도 개선한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전시패널 및 촉각 전시 보조물을 설치하고 대표 소장품 3D 스캔자료를 활용한 전시보조물을 제작한다.

청각장애인도 한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청각 장애인 대상 문자 한국수어 스마트 가이드 실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수어·점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도 설치된다.

'어린이박물관'도 개편된다. 6~10세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과 함께 5세 이하를 위한 유아 공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편 주제는 '아시아 도자문화' 특성화에 맞춘 '모두의 도자기'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 전시·체험·놀이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공사는 10~12월에 진행하고 환경정화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 공개한다. /이나라 기자

4월 ACC 북큐레이션 '아시아 영화와 극'

문화예술 도서 40여권 소개

영화로 아시아 문화 풍경을 들여다보고 화사한 봄날 사랑을 부르는 음악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독서 여행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북큐레이션) 3~4월 주제 '아시아 영화와 극'으로 정하고 아시아 권역 영화와 극 이야기를 다룬 문화예술 도서 40여권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ACC는 오는 4월 30일까지 도서관 이벤트 홀에서 관련 책을 선별해 전시, 시민들을 만든다.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한국 영화는 물론 중국, 인도, 일본, 이란, 대만 등 아시아 권역의 영화를 책으로 만나는 기회다.

'아시아 영화 100', '한중일 영화 100년사', '아시아 영화의 탄생'에서 아시아 영화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박찬욱의 오마주', '왕가위' 등을 통해서 아시아 대표 영화감독이 직접 전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영화로 떠나는 동아시아 기자 여행', '인도, 영화로 읽다', '도시의 확장: 문화와 영화'는 영화라는 낯설고도 친숙한 거울로 아시아 국가의 문화 풍경을 조망한다.



3~4월 북큐레이션 대표 도서 /ACC 제공

ACC 도서관은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에 어울리는 음악 이야기를 찾아내 새로운 만남도 마련했다.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그럴 때 우린 이 노래 듣지', '나는 음악에게 인생을 배웠다' 등은 거대한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길라잡이다. '음악 인류'와 '음악 분승'은 인간이 음악에 빠져드는 근본적인 물음을 떠올려 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담장은 "아시아 영화와 극을 주제로 선별한 추천 도서에서 아시아 문화를 찾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다양한 음악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도 인간이 오랫동안 음악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광주여성재단, 양육자 성평등·성교육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3~11월 '2023년 양육자 성평등·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내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성교육 전문강사진이 현장을 찾는다.

이번 성교육은 성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등 성평등·성교육을 통해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문화확산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성평등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광주여성가족재단 키움지원단(062-670-0572)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조사·연구 보고서 공개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은 참외 모양을 닮은 몸체에 꽃을 주둥이로 삼아 표현한 세련된 유물이다. 고려 제17대 왕이었던 인종(재위 1122~1146)의 능에서 '황동 6년' (1146)이라는 정확한 연도가 표기된 책과 함께 발견된 주목받았다.

몸통에 무늬가 더해진 '청자 상감 국화 모란 무늬 참외 모양 병' 역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참외 모양의 화병이다. 높이가 약 3cm 정도 높지만 외관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6일 발간한 '고려시대 상형청자 I'에 따르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과학적 분석 장비를 활용해 내부 구조를 조사한 결과 같은 형태의 청자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제작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도자 관련 자료 외에도 의구장각의 경우, 한국서화, 불교미술, 동남아시아 불교 조각 등 다양한 소장품을 조사·연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7종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연남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